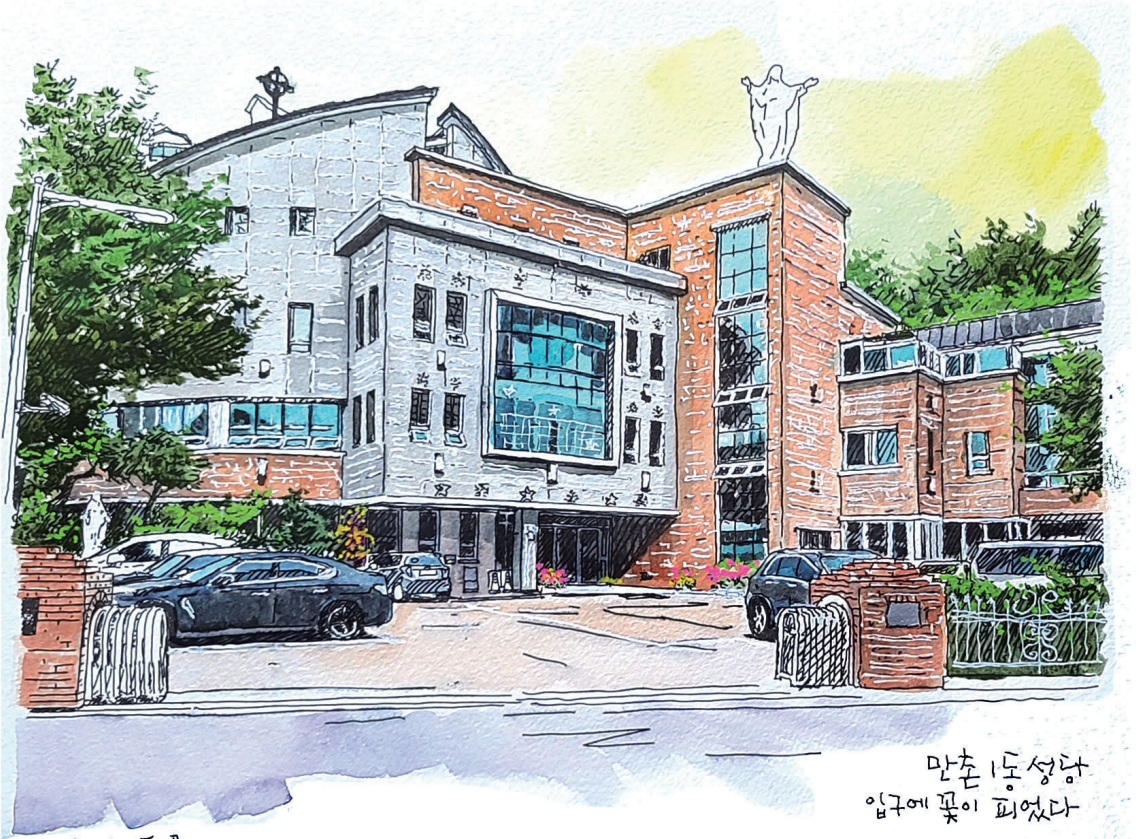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연중 제28주일
2021. 10. 10. (나해) 제2289호

제주보



천주교 + Bernard -

만촌1동성당
입구에 꽃이 피었다

2021. 7

만촌1동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1독서 지혜 7,7-11 **화답송** ◎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제2독서** 히브 4,12-13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알렐루야. **복음** 마르 10,17-30 **영성체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 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신평본당 주임 | 성용규 도미니코 신부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마르 10,17)” 부자 청년의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위험한 질문입니다. ‘미래에 있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며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선택하고, 미래에 초점을 맞춘 채 현재를 거기에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이버 종교에 이 질문을 했다면 그 청년은 사이버 종교에서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하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헤로데의 봉건 통치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때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세상은 에덴에서 쫓겨나 고통받는 곳이고, 현재는 미래를 위해서 참고 견뎌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과는 정반대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하고, 아버지의 뜻은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먼 미래, 저 먼 곳의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마르 10,21).” 예수님은 그가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보지 못하고 법 조항으로 지켜왔다는 것을 아십니다. 율법으로써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계명을 살아가도록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소유한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것이라는 하느님 창조의 의미를 일깨워 주십니다. 일종의 충격요법입니다. 비록 그는 율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지만,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깨달음을 얻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복음의 부자 청년처럼 많은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위해서 현재를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순되고 부조리한 상황에서도 사랑은 참는 것이라고 신앙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따로 분리되어 종교의 영역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변화시키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재에 행복할 때 미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질문은 잘못되었습니다. 질문을 올바르게 고친다면, 그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필름**

룻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

배고픈 시절의 이야기는 지금 배부른 이들에겐 하나의 추억이지만 여전히 배고픈 이들에겐 하나의 트라우마로 작동한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나는 묻는다. 우리의 어머니들에게 이 이야기는 추억일까, 트라우마일까.

언뜻 보기에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애뜻하고 포근하다. “어머님을 두고 돌아가라고 저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 어머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렵니다. 주님께 맹세하건대 오직 죽음만이 저와 어머니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룻 1,17). 그러나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 가난한 생활은 그의 일상이었고, 과부의 삶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조차도 사치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했다. 집안의 재력이 보아즈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보아즈는 룻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네 남편이 죽은 다음 네가 시어머니에게 한 일과 또 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네 고향을 떠나 전에는 알지도 못하던 처례에게 온 것을 내가 다 잘 들었다.”(룻 2,11).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건네진 하느님의 말씀과 무척이나 닮아있다. 룻의 이야기는 하느님의 약속과 그로 인한 축복을 갈망했던 이스라엘 성조들의 이야기와 맥을 같이한다. 룻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 안에서도 제 민족과 고향을 떠나 주님의 구원 여정에 함께하는 여인들을 우리는 발견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룻의 이야기에서 특별히 주목할 점은 보아즈가 과부가 된 룻을 맞아들이는 데 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즈와 함께 잠자리에 들 것을 요구한다. 룻은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시어머니의 뜻대로 움직였고 그 뜻은 사별한 남편 대신 집안의 한 남자를 통해 후손을 잇고자 함이었다. 우리는 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오랜 관습이고 그 관습대로 후손을 잇게 할 책임은 집안 남성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후손을 이을 그 남자를 ‘구원자(고엘)’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그런데, 보아즈는 밤에 몰래 자신의 발치에 들어선 룻을 받아들이지 않았

다. 보아즈는 남몰래 룻을 구원한 게 아니었다. 밤의 만남은 대낮의 성문으로 자리를 옮긴다. 보아즈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성문 앞에서 ‘공식적으로’ 백성과 원로들의 축복을 받으며 룻을 맞아들이게 된다.

후손을 잇는 데 있어 이스라엘의 남성네들의 책임과 의무는 야훼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의 축복에 대한 절대적 신앙이기도 했다. 다만 그것이 남성들의 구원 의무와 그 실행, 그리고 후손을 득한다는 결과론적 해석에 방점이 찍혀 읽혀진다면 우리는 성조들의 이야기 안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여인들의 지혜와 용기를 폄훼하고 만다. 역사의 뒷 그늘 속에서 다소 차별적인 그 사회의 관습을 따라가는 성서 속 여인들의 움직임은 하느님의 축복에 민감하게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남성들의 책임을 다시금 일깨우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여전히 여인이 짊어질 책임이 있다며 아이 못 낳는 여인에 대한 혐오가 버젓이 작동하는 한, 룻의 이야기는 세상 속 남자들이 어떻게 한 여인을 받아들이고, 그 여인에 대한 어떤 존중을 긴장감 있게 가질 수 있는지 성찰케 한다. 진부한 듯 하나, 아이는 혼자 낳는 게 아니고, 아이는 제 삶의 자리를 떠나와 한 몸을 이루는 부부의 초월적 사랑의 결과라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 볼 일이다.

보아즈와 룻의 아이 오벧은 다윗의 할아버지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태어날 다윗 가문은 이렇게 낯선 이방인 여인 룻과 그를 따듯이 맞이한 이스라엘 남자 보아즈를 통해 전해진다. 메시아 … 하느님과 백성을 만나게 하는 이. 부부가 되었건 고부가 되었건,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작은 일에서 메시아의 가치를 되새김질해도 좋으리라. **▶▶▶**

교황 “핵무기 경쟁은 귀중한 자원의 낭비”

2021년 9월 26일 바티칸 뉴스 | 번역 이재협 신부



2019년 태국일본 사도 순방 중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에서 연설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Vatican Media)

“핵무기를 포함한 군비 경쟁은 인류의 통합적 발전과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해 더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을 끊임없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9월 26일 ‘국제 핵무기 전면 폐기의 날’을 맞아 교황 트윗 계정(@Pontifex)을 통해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교황의 메시지는 트위터로 항상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던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다음과 같은 말을 반향한다.

“전 세계적으로 1만 4천여 개의 핵무기가 저장돼 있습니다. 인류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핵으로 인한 파멸에 가까이 놓여 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어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이제 핵 갈등의 구름을 영원히 걷어내고, 이 세상에서 핵무기를 전면 폐기하여, 신뢰와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

교황은 지난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일반알현에서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건설하자고 강력히 호소한 바 있다. 2021년 1월 20일은 2017년 유엔 총회에서 의결한 핵무기 사용과 위협, 핵무기 보유 및 제공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핵무기금지조약’ 발효를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저는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사람들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필수 조건을 마련하는 데 확고한 결심으로 동참할 것을 격려합니다. 다자간 협력과 평화의 증진에 대한 기여, 이것이 오늘날 인류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지난 2019년 11월 24일에도 교황은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에서 연설을 통해, 폭발 뒤 “그림자와 침묵”만 남기는 핵무기의 파괴적 힘과 영향을 경고하고, 핵무기를 “파괴와 죽음의 블랙홀”로 표현한 바 있다. 당시 교황은 일본의 심장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길 원한다면, 우리 손에서 무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국 순교복자 124위 약전

충청도의 내포 평야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면천의 솔피(현 충남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에서 태어난 김진후(金震厚) 비오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증조부요 1816년에 순교한 김종한 안드레아의 부친이다. 족보에는 그의 이름이 ‘운조’(運祚)로 기록되어 있다.

비오가 천주교 신앙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맏아들이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로부터 교리를 전해 듣고는 이를 형제들에게 전하면서였다. 그러나 김진후 비오는 처음부터 천주교 교리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았다. 그는 세상의 권세와 쾌락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은총의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여유가 없었다. 특히 그는 감사 밑에서 작은 관직 하나를 얻게 되자, 자식들의 권유를 강하게 물리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친을 개종시키기 위한 자식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그의 영혼은 점차 예수 그리스도께 기울어지게 되었고, 마침내는 관직을 버리고 비신자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게 되었다. 이후 그는 열심히 신자의 본분을 지켜나감으로써 어른으로서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

비오는 1791년의 신해박해 때 처음으로 체포되어 신앙을 고백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그는 이후에도 네다섯 차례나 체포되었다가 풀려나곤 하였다. 또 1801년의 신유박해 때는 다시 체포되어 배교를 뜻하는 말을 하고는 유배형을 받았지만, 얼마 후 해배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김진후 비오는 1805년에 다시 체포되어 해미로 압송되었다. 그가 천주교 신자답게 행동한 것은 이때부터였다. 관장 앞에서도 서슴없이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박해가 공식적인 것이 아니었으므로 비오는 사형 판결을 받지 못한 채 오랫동안 옥에 갇혀 지내야만 하였다. 그동안 그는 점잖고 품위 있는 성격으로 인해 해미의 관리와 옥리들로부터 존경과 대우를 받게 되었고, 드러내놓고 신자의 본분을 지킬 수도 있었다.



김진후 비오
(1739 ~ 1814년)

이렇게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비오는 모범적인 인내심으로 옥중 생활의 고통을 참아냈으나, 이미 그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다. 결국 그는 1814년 12월 1일(음력 10월 20일) 옥중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으니, 당시 그의 나이는 75세였다. 아무리 신앙으로 인한 인내심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옥살이를 견디기 어려운 나이였다.

이때 비오가 병으로 죽었는지, 굶주림이나 또 다른 고통으로 인해 죽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생전에 받은 박해와 옥중에서의 신앙생활 때문에 온 교회가 그를 기리게 되었다는 사실만이 전해올 뿐이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주교님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성경통독 40주간 2기를 모집합니다.

기간 : 2021. 11. 28(대림1주일) ~ 2022. 9. 30(금)

신청기간 : 2021. 10. 3(일) ~ 31(일)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bible40weeks.org>)를 통한 개인별 가입 및 신청

신청비 : 4만원 문의 : 교구 사목국, 053)250-3057

※ 1기 신청 후 중도 포기하신 분도 신청가능(신청비 없음)



28. 예수님 바라보기 : 가정의 소명 ⑧

“모든 이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리스도의 눈길”(요한 1,9; 사목헌장 22항 참조)은 동거만 하거나 사회혼만 한 신자들, 또는 이혼하고 재혼한 신자들에 대한 사목에 힘을 실어 줍니다. … 비정상적으로 결합한 부부가 공적 유대를 통하여 모범적인 안정을 이루며 깊은 애정과 자녀에 대한 책임, 시련을 극복하는 능력을 보이게 될 때, 이는 가능하다면 혼인성사의 거행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상처 입은 가정들과 마주할 때,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원칙을 늘 명심하여야 합니다. ‘사목자들은 진실을 알기 위하여 상황 파악을 조심스럽게 해 나갈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가정공동체』, 84항) 그러므로 사목자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지만, 여러 복잡한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기쁨』, 78~79항)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쓰지 않는 물건(의류, 전자제품, 가구 등)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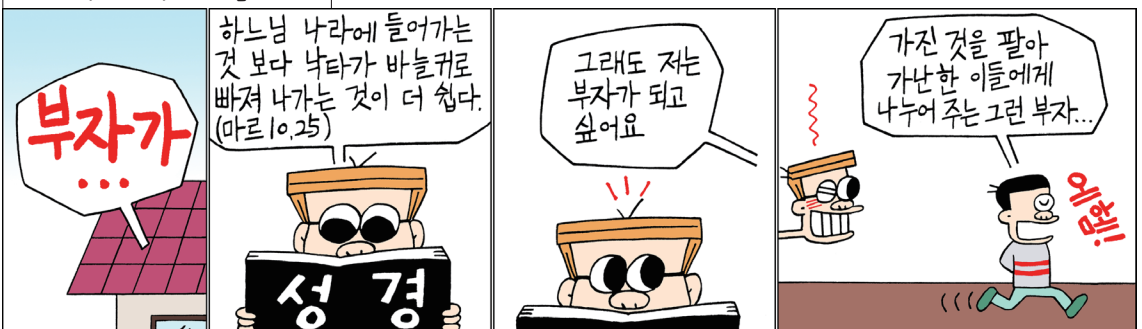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말씀의 해 안내지 39호 정답

1. 150편 2. 다윗 3. 22편 2절 4. 주님은 나의 목자

부자도 부자 나름

박성규 엘리시오



미사 안내

2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1일(월) 10:30 범어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10월 12일(화) 11:30 계산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1일(월) 11:00 계산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0월 13일(수) 10:00 평화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0월 11일(월) 11:00 황성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6일(토) 11:00 월성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1일(월) 11:00 봉곡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10월 16일(토) 11:00 성모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0월 11일(월) 11:00 죽도성당	-	-

성소 | 피정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10.16(토) 14:00
장소: 개화동 수도원(서울)
문의: (010)3800-1579

가르멜수도회 성소 모임

상담: 상시 / 장소: 서울가르멜수도원
문의: (010)2140-7414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 상담

대상: 20~30대 성소에 관심 있는 분
상담: 필요시 언제나 방문 가능
문의: (010)3375-4408

carmeldg@hanmail.net

살레시오수도회 성소 상담

대상: 고3, 일반 35세이하 미혼 남성
문의: 심재현 신부, (010)2042-8353

효령하늘집 피정

개인, 단체: 언제나
산내 치유 피정: 10.19(화)~20(수)
치유기도: 매주 수 14:00~16:00
문의: (054)382-0091

교육 | 모집 | 기타

남대영기념관 예성상담센터

심리적 갈등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극복
심리평가(성격강점 외) 및 상담
통합놀이치료(모래놀이, 미술치료)
문의: 허리나 수녀, 657-1295

대구ME 383차 비대면 주말

383차: 10.29(금)~31(일)
장소: 부부 각 가정 / 문의: 983-0521
코로나 걱정없이 가정에서 하는 ME주말
코로나 어둠 속 사랑과 희망의 등불
을 다시 한번

제대꽃꽂이 봉사자를 위한 아카데미 제13기생 모집

문의: 전례꽃꽂이연구회, (010)2509-9748

비대면 심리 독서 모임

일시: 11~12월 2·4주(수) 9:30~12:00
대상: 40세~55세 여성(선착순 10명)
동반: 데레사 수녀(한국상담심리학회1급)
주최: 텃밭포교베네딕도수녀회
신청: (010)7241-2236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 2022년도 지원 대상자 공모

- 목 적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과 연구 지원
 - 부 문 ① 장학금 지원(학부, 석박사 과정) ② 학술 연구비 지원(천주교 관련 연구)
 - 신 청 10. 14(목) ~ 12. 14(화)
 - 접 수 우편 또는 전자우편(cafl@cbck.kr)
 - 문 의 주교회의 평신도기금운영위원회, 02)460-7533
- ※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 '알림마당-소식' 참조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효선 데보라

난창·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봉덕점 · 서문시점점 010-6481-8848

광재혁신경과
SOLARIS CLINIC OF NEUROLOGY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광재혁(발렌티노) 053-255-2211
前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조교수
신남영(청라언덕역) 9번 출구 적십병원 4층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암검진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고혈압
소화기·내시경 원장/전문의를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이시아요양병원

대구시 동구 파계로6길 16(지묘동)
(파군재 삼거리 좌회전 100m)

(053)983-7700

병 원 장 이 동 구 (마티아)

바른동물의료센터

▶ 365일 24시간 진료
▶ 대학병원 석/박사 원장 진료
▶ 동물병원내 CT 장비 도입
▶ 주차 10대이상 완비
▶ 유튜브 '개알담' 채널 운영

특화진료
정형외과
심장내과
건강검진
고양이특화
아간양급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280-5 (이마트 감삼점 맞은편)
대표원장 이세원(무까) 053-571-0075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이찬현(야고보) 신부
2019년 10월 12일

행사 | 모임

10월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10.17(일) 14:00

장소: 남산동 신학교

대상: 중1~대학·일반

코로나 힐링 전시회

대구 작은예수의 집 25주년 기념

코로나 극복 힐링 전시회에 초대합니다.

일시: 10.14(목)~19(화) 10:00~19:00

장소: 계산동 성당 내 CU 갤러리

예약: 정 데레사 수녀, (010)8644-1971

교육 | 모집

2022학년도 백합어린이집 입학 설명회

코로나19 확산으로 입학 설명회를 비대면 ZOOM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입학 설명회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10.15(금)까지 어린이집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설명회: 10.20(수) / 문의: 256-6862

2022학년도 무학교 신입생 모집

존중과 감사로 행복을 배우는 무학교

대상: 경북지역 중3학년 졸업예정자
고입설명회: 10.23(토) / 11.20(토)

기숙사 운영(원거리 우선)

문의: 854-8015

효성초등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일시: 11.1(월)~5(금) 9:00~16:30

대상: 2015.1.1~2015.12.31 출생 아동.

조기 입학자 및 2021 취학의무유예자

설명회: 10.23(토) 10:00, 본교 셋별관

문의: 234-9500(사전예약)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자유대학원

인문학석사학위 과정 신입생 모집

접수: 11.1~12 / 월, 목 야간 강의

대상: 학사학위 소지자(전공 무관)

혜택: 학생 전원 50% 장학금

문의: 660-5252~4 / (010)6563-0409

바로로말 영성프로그램

말씀테라피: 11.2(화) 4주 19:00~20:30

말씀테라피: 11.3(수) 4주 14:00~15:30

시니어독서모임: 11.4(목) 10:30~12:00

기도훈련: 11.5(금) 8주 14:00~15:40

문의: 바로로말, (010)6681-5185

성모솔숲마을 자연치유센터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몸과 마음의 힐링을 원하시는 신자(암 또는 아토피환자)와 일반인이 머물러 갈 수 있습니다.

지도: 박상호 신부

문의: (054)373-3955 / (010)6630-3816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진료안내, 공급실, 기타

대상: 만 65세 이하 건강한 남녀

비신자 포함

담당: 류요한 신부

문의: 650-4442 / (010)6565-6672

경산시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

분야: 기부은행 자원봉사자 모집

자격: 경산지역 활동 가능하신 분

문의: 경산시어르신복지센터, 854-1666

채용 | 안내

무태성당 성가대 반주자 채용

문의: 성가대 단장, (010)3516-1911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종용, 김진이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위·대장내시경검사에서 진료까지

당일진료 가능합니다.

검진센터: 670-5959(09:00~17:30)

칠곡가톨릭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에서

6대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문의: 320-2061

http://www.tcmch.co.kr

2021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의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U&I
유엔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경임(아네스)

38년 전통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053-743-4488
M. 010-3530-7467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를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입구 미래에셋증권대우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경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대구연세안과
백내장/노안/라식/녹내장/망막질환
대표원장 박중원(소시모)
(현 연세대의과교수)
안과전문의 서계신(베드로)·장주현(비비안나)
수성구보건소 맞은편 대동M타워 4~6층
☎(053) 626-8881~5

암·면역 전인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입구 1688-7667